

독자권익위원 칼럼

20조원의 마중물과 '지역적 자기효능감'

최충명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원장



정치적 담론이 경제적 수치나 거대한 인프라 계획으로 치환될 때, 대중은 흔히 그 규모에 압도되거나 혹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제시한 '20조원 투자 계획' 역시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표심을 겨냥한 예산 배정으로 보겠지만, 인간의 마음과 집단의 행동 기제를 오랜 세월 관찰해 온 심리학자의 시선에는 그 이면의 풍경이 읽힌다.

이 막대한 자본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우리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상실해온 '집단적 자기효능감(Collective Self-Efficacy)'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 마중물이어야 한다.

본래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 하나의 몸이었다.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시작된 '분리'의 세월은 행정적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공동체 자아의 파편화를 의미했다. 한 몸이었던 대상이 인위적으로 나뉘어 각자도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묘한 경쟁과 갈등은 지역민들에게 무의식적인 '분리 불안'과 정서적 결핍을 안겨줬다. 이는 마치 발달 과정에서 애착 대상과 분리된 아이가 겪는 혼란과 유사하다. 이제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단순히 행

정 구역을 병합하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훼손되었던 '자아 통합(Ego Integrity)'을 이루고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집단적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가 주장한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이것이 집단 단위로 확장되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지난 수십 년간 광주와 전남은 정서적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인구 소멸의 공포와 낙후된 산업 구조는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안 될 것'이라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조원 투자 발표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다시금 스스로를 유능한 존재로 지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충격요법'이자 새로운 동기 부여의 시작점이다.

특히 이번 통합과 투자의 핵심은 '지역 경제의 자생력'과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두 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낄 때는 자신의 터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다. 자식 같은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남겨진 지역 사회는 일종의 '빈둥지 증후군'과 유사한 집단적 우울과 상실감을 경험해 왔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활력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따라서 20조원의 투자는 지역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전기지(Secure Base)'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 역량

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그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지역 거점 대학과 산업 단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다시 지역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는 우리 공동체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효능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물론 자본의 투입이 곧바로 통합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외부적 동기(보상)가 내재적 동기(자발성)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20조원이라는 마중물이 시·도민들이 협력을 통해 성공을 경험하는 '승리의 기억'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작은 협력의 성공들이 쌓여 '우리가 하나가 되니 정말로 세상이 바뀐다'는 유능감을 체감할 때, 비로소 행정 구역의 경계는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통합은 지도를 다시 그리는 물리적인 토목 공사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외된 번방'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동적 중심'이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장엄한 심리 프로젝트다. 4월의 봄기운과 함께 시작될 이 거대한 전환이 돈의 논리를 넘어 '마음의 논리'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20조원이라는 생명수가 광주와 전남이라는 두 줄기 강물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 그 합쳐진 물줄기가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깊고 푸른 호수가 되길 소망한다.

결국 통합의 종착역은 거대한 복합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서로를 신뢰하며 대를 이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심리적 연대'와 '자생적 삶의 터전'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기고

기술 넘어 '온정'으로 완성하는 스마트 시티

이현리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DX지원센터장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눈부시게 변화시켜 왔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산업과 경제, 교육과 의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고, 서로의 연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온정이 살아 있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공동체 문화와 따뜻한 인심은 지역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단순한 특징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긍정적 형성 분위기'는 기술로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스마트시티 조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AI 기반 스마트시티는 교통, 환경, 안전,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만 강조한다면, 도시는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따뜻함을 잃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긍정적 형성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AI 기반 스마트시티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한다. 그 방향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관계 중심'이어야 한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가 단순한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술은 온정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AI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는 '인성'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공감과 배려는 대신할 수 없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교육과 정책에서도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온정과 나눔의 문화는 이러한 시대에 더욱 빛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결국 지역의 미래는 기술과 인간다움의 조화에 달려 있다.

AI가 주는 편리함에 인간의 온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지키고 키워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는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AI 시대의 스마트 시티는 차가운 시스템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온정을 바탕으로 관계가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러한 도시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을 넘어 온정으로 완성되는 도시, 그리고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독자투고

후미등 퇴색 차량 타인 안전 위협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초아나 동이를 무렵 새벽시간대는 철쭉같이 어둡다.

여기에 지난 겨울 잦은 눈, 비에 후미등이나 번호판이 더럽혀진 차량은 아간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기상여건하에서 자가 운전자라면 한번쯤 어두운 밤길을 운행하다 갑자기 막대한 앞선 주행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아찔한 경험을 한번쯤 하였을 것이다. 사고는 한순간 방심과 안전 불감증에서부터 일어난다.

필지도 종종 차량 후미등과 반사경이 심하게 퇴색돼 있거나 먼지로 뒤덮인 채 운행중인 화물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후미등이 아예 켜지지 않았거나 아예 파손된채 너털너털 거리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해 시커멓게 도색된 차량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다라도 갑자기 마주치게 된 시커먼 화물차량과의 추돌사고는 피할수 없게 된다.

야간운전을 할 때 후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앞서 진행 중인 차량 후미등이나 반사경으로 상대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화물차량 운전자는 수시로 차량 후미등과 반사판을 세척해 나와 타인의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 정성경철서삼서출소장

사설

통합특별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는 이유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한 첫 사례여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지역이 하나가 돼 '시너지 효과'를 내도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전산 통합 등의 예산이 정부 추가 결정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통합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전산 통합 160억원을 포함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며 "삭감된 출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출신인 신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혁신당 전하람 원내대표와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출범 후도 문제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광주시의회는 28명, 전남도의회는 63명 등 통합특별시의회의는 총 91명이 됐다. 하지만 이는 광주시 인구조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 180만명, 광주 140만명 등 양 지역 인구수를 감안하면 광주시의원 정수는 49명이 돼야 하는 데 획정된 의석수는 전체의 3분의 1도 채 안된다는 얘기가.

민행배 더불어민주당 특별시장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광주시의원 의석을 현재 23석에서 46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인구 비례를 맞추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러한 의석 불균형은 특별시 출범 이후 도시와 농촌 예산·자원 배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컨대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한 전남 출신 의원들이 농어촌 인프라 확충과 지방 소멸 대응에 우선 순위를 둘 경우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광주의 첨단 산업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합의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민 시름 덜어주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광주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전담팀은 접수창구 운영과 선별카드 발급 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 판정, 이의신청 처리 등 지원금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광주시는 또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지원금 규모는 총 1645억원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5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에는 15만원을 지급기로 한 것이다. 대상 여부는 20일부터 국민비서사 전담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데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지급받은 금액은 오는 8월 31일까지 소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시 금고로 자동 환수된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사용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동네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된다.

사실 이 지원금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된 광주·전남에 있어 '가뭄속 단비'와 같은 존재다.

기름값 인상은 산업 생산비와 농어업 경영비, 서민 생활비까지 동시에 견인했고 지역 상권도 소비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을 둔 전남은 원료와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광주 역시 자영업과 서민경제의 체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돼 생활비 부담 완화와 반짝이나마 지역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가.

취재수첩

'해체 위기' AI페퍼스, 광주 존치해야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2021년 창단한 광주·전남 유일의 동계 프로스포츠 팀이다.

지난 2021~2022시즌 V리그에 합류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창단 후 4시즌 동안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수천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2025~2026시즌에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성과도 거뒀다. 16승 20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6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대 최다승리와 최다승점을 경신했고, 창단 이후 첫 리그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지역 유일 동계 프로스포츠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구단 경영

위기가 찾아오면서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5월 연고지 협약 종료로 앞두고 구단 매각 절차에 나섰다.

후보지는 광주를 포함한 전주, 구미 등이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기업 인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고지 협약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시간도 촉박하다.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이대로 매각이 불발된다면 팀 해체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

현재 광주·전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AI페퍼스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표할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다. AI페퍼스는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유일한 동계 프로팀이라는 상징성과 활용도가 높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통합과 브랜드 형성, 시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팀이 사라진다면 시민들은 겨울철 볼 수 있는 스포츠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AI페퍼스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치부 370-7040	는성실 370-7200			
대표전화 (062) 370-70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팩스 (062) 385-54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